

· 이 책은 베스티안재단의 2016년 멘토링 프로그램

"희상원자-보호자 멘토링 I&MOM(아이애편담)2기"를 통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희상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려웠지만,

사고를 겪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책에 담긴 진심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울림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1 | + | ◆ | 베스티안 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

· 베스티안재단의 2016년 멘토링 프로그램 "희상원자-보호자 멘토링 I&MOM(아이애편담)2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 이 책의 그림은 경동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1 | + | ◆ | 베스티안 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

## 스타킹

지은이 서민희 그림이 권봉구





“여자애인데 흉터가 있어서 어떡해~”

“아이고 아프겠다. 어쩌다 다쳤어?”

“쫣쫣쫣”

나를 보고 하는 말이다.

나는 한 살 때 주방에서 화상을 입었다.

엄마는 내가 뜨거운 물에 빠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화상을 입은 거야?” 라고 물어봤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몸에 남아있는 흉터 모양을 보고 화상 장면을 상상해볼 뿐이다.

유치원 때는 어떤 친구가 내 흉터를 보고 징그럽다고 했다.

난 그 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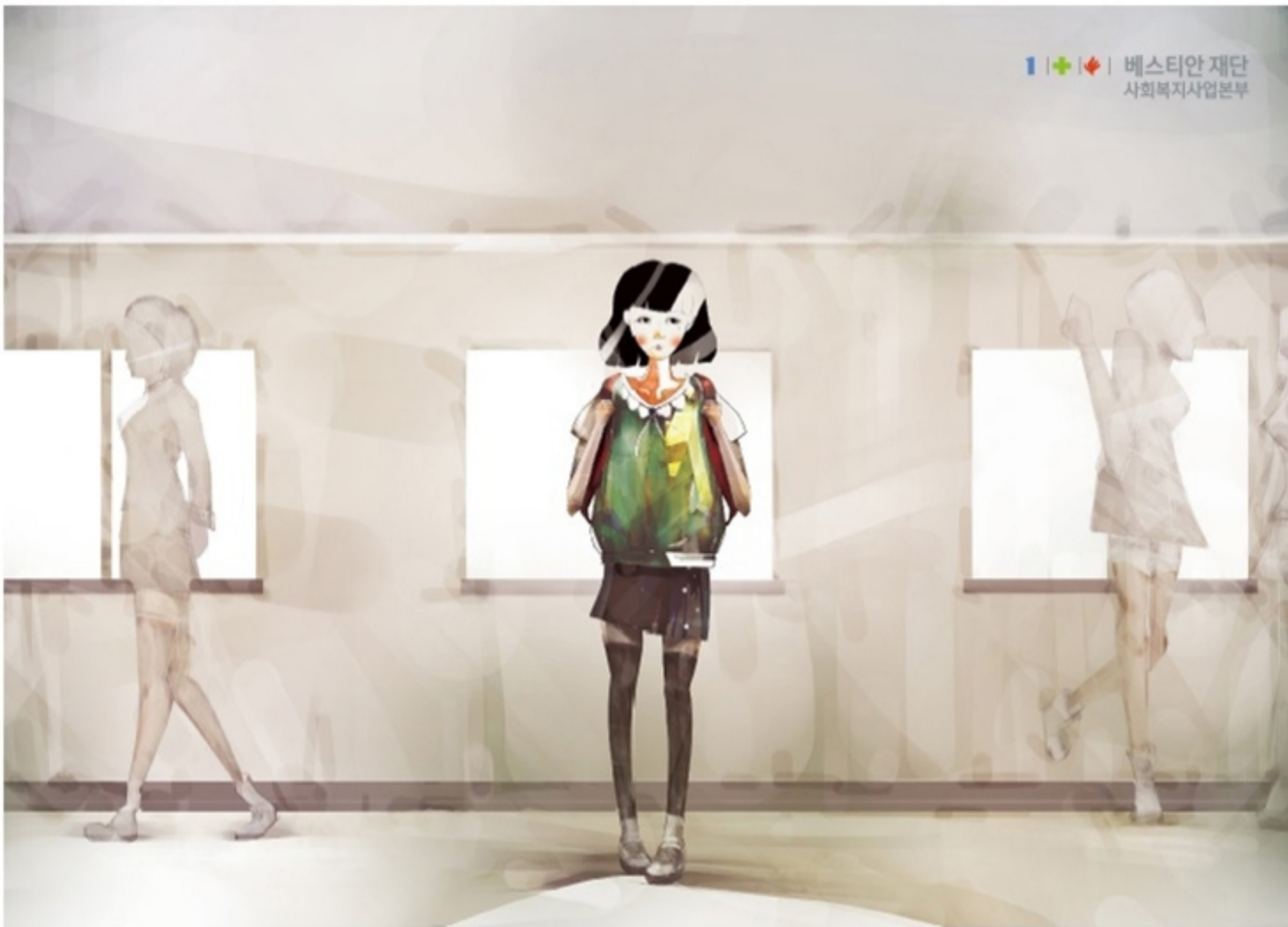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린다.

난 속제는 까먹으면서 이런 말은 잘 기억한다.



나는 올해 중학생이 됐다.  
그리고 고민도 생겼다.  
바로 교복치마 때문이다.

아직은 추워서 까만 스타킹을 신고 교복치마를 입는다.  
1년 내내 까만 스타킹을 신고 교복치마를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씨가 계속 추웠으면 좋겠다.



벗꽃이 폈다.  
친구들은 다 까만 스타킹을 벗었다.  
친구들 다리는 살구색이고, 내 다리는 까만색이다.

오늘 아침에도 까만 스타킹을 신었다가 벗었다.  
그리고 또 다시 신었다.  
내 마음도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야 까만 스타킹 신고 안 답냐?”

까만 스타킹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전교에서 나밖에 없다.



까만 스타킹을 벗었다.  
학교에 1등으로 갔다.  
도착하자마자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다.



기다리던 첫 여름방학이다.

친구들이 수영장에 놀러가자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수영장인지 모르겠다.

'화상 용터 수영장' '화상 용터 수영복' '수영복 용터 가리기'로 검색해봤다.

꼭 수영복을 입어야 할까?

결국 난 청바지를 입고 수영장에 갔다.  
친구들에게는 집에 수영복이 없어서 못 입었다고 돌려댔다.

청바지를 입고 물에 들어가는데 수영장 아저씨가 호루라기를 분다.

“뵙! 뵙뵙! 뵙이이익!”

“거기 학생! 다 같이 이용하는 수영장에 청바지를 입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 빨리 나와”

나도 수영복을 입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여름이 너무 싫다.



나는 아무하고도 의논할 사람이 없다.  
학교에 화상 흉터가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정말 너무 답답해서 벗어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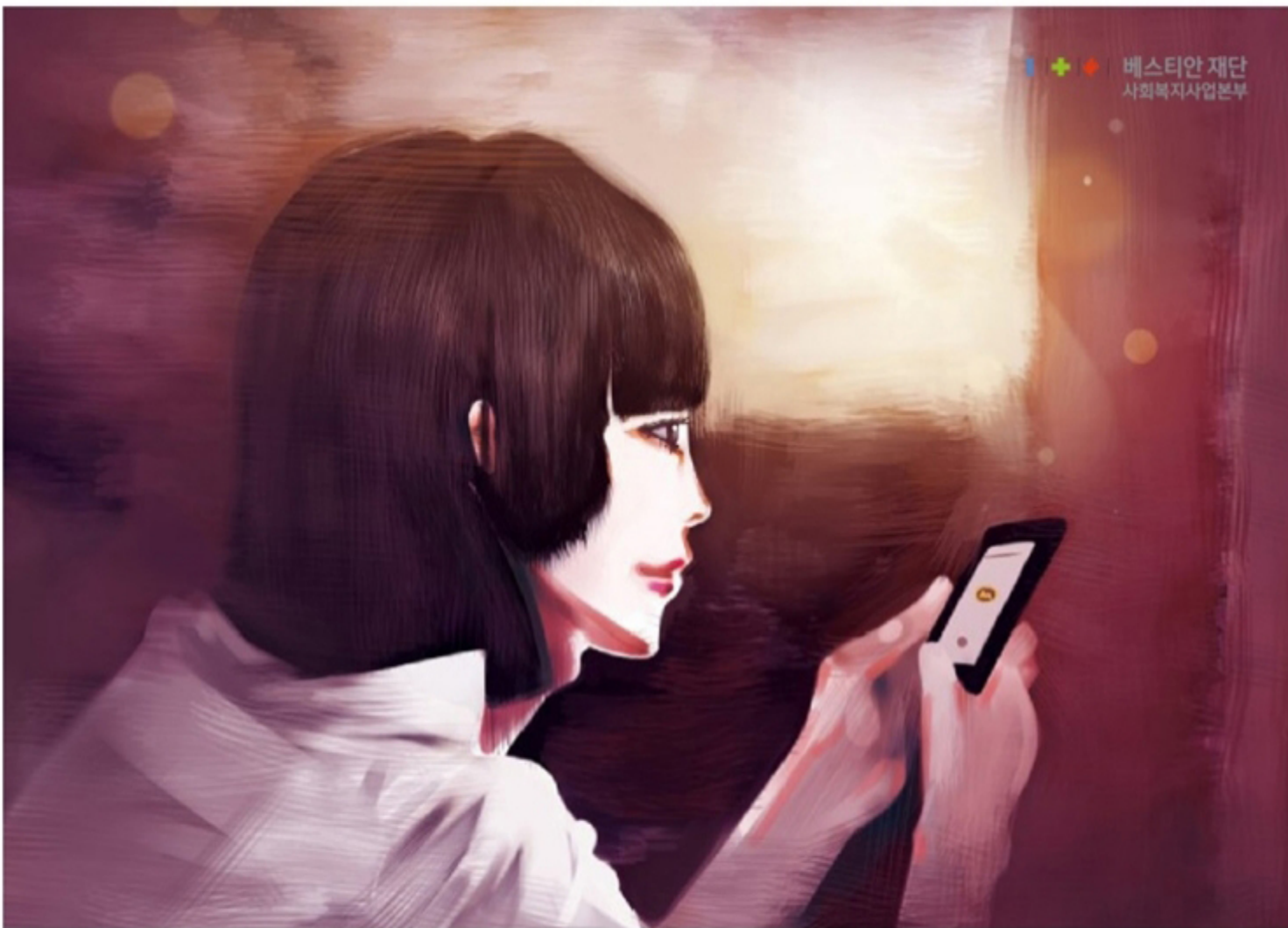
그때, 화상병원에서 만났던 언니가 생각났다.  
그 언니는 불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다. 나보다 훨씬 더 화상이 심하다.  
그 언니라면 왠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아 전화를 걸었다.  
“언니! 학교 다닐 때 수영장 가 봤어요?”

“아니, 그건 왜?”

“헐 대박. 언니도 안 가봤어요?  
언니 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하고 수영장에 갔었는데요,  
청바지를 입고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그랬어?”

“언니 그리고 여름 되니까 스타킹도 못 신고, 흉터를 가리기 너무 힘들어요.”  
언니는 웃었다.



“나도 그랬어! 여름이 오는 게 정말 싫었어.  
나도 너랑 똑같은 고민했지. 학교 다닐 때 생각난다.”

나랑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언니는 그냥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언니는 그럼 여름에 어떻게 다녔어요?  
친구들이 자꾸 이것저것 물어봐요.”

“친구들에게는 말 한적 없어?”

“네…….”

“나도 처음에는 숨겼는데 나중에 친한 친구들한테는 말했어.  
너도 화상 입었다고 말해보는 건 어때?”

“……”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친구들에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유가 만 가지는 더 떠올랐다.

그런데 내 생각에도 다 핑계 같다.

그럼 한번 용기를 내볼까? 정말 말해볼까?



2016년 7월 30일

애들아 나 말할게 있어  
나는 한 살 때 뜨거운 물에 빠져서 허리부터  
발까지 화상을 입었어.  
다리는 3도 화상이어서 흉터가 좀 심하게 남아있어  
그래서 흉터를 가리려고 까만 스타킹만 신고 다녔어ㅠ.ㅠ  
너희가 이걸 알게 되면 나를 떠날까봐 겁났어  
흉터가 있으면 나랑 안 놀아줄 수도 있잖아

오전 8:30

수진



헐 그랬어? 대박사건! 뭐 그런 거 가지고 안노냐!!!  
우릴 뭘로 보고ㅠ.ㅠ

오전 8:32

><



너 다리 예쁘던데? 난 지금까지 몰랐어  
왜 지금 말해! 일찍 말하지♥

오전 8:33

령



아니는 아토피 때문에 몸에 흉터가 대박이야.  
매일 긁어서 더 심해져.  
맨날 피나 ㅋㅋ

오전 8:34



사랑해 애들이!!!♥



당장 지금이다. 용기가 사라지기 전에 연락을 해야지.  
더 시간을 끌었다가는 고백을 못할 것 같다.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냈다.

[ 애들아, 나 말할게 있어!  
나는 한 살 때 뜨거운 물에 빠져서 허리부터 발까지 화상을 입었어.  
다리는 3도 화상이어서 흉터가 좀 심하게 남아있어.  
그래서 흉터를 가리려고 까만 스타킹만 신고 다녔어ㅠ.ㅠ  
너희가 이걸 알게 되면 나를 떠날까봐 겁났어.  
흉터가 있으면 나랑 안 놀아줄 수도 있잖아. ]

친구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헐 그랬어? 대박사건! 뭐 그런 거 가지고 안노냐!!! 우릴 뭘로 보고ㅠ.ㅠ”  
“너 다리 예쁘던데? 난 지금까지 몰랐어. 근데 왜 지금 말해! 일찍 말하지♥”  
“야 나는 아토피 때문에 몸에 흉터가 대박이야. 매일 긁어서 더 심해져. 맨날 피나 ㅋㅋ”

2학기가 시작됐다.  
난 처음으로 남들과 같은 시간에 학교에 갔다.  
친구들이 내 다리를 쳐다보는 느낌이었다.  
내 걸음걸이는 부자연스러웠다.

'어떻게 하면 흉터가 안보이게 걸을 수 있을까?'

햇살이 내 다리를 비추지 않았으면. 그러면 흉터가 더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거니까.  
내 뒤로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러면 친구들이 내 흉터를 모를 거니까

2학기가 시작된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내 흉터에 대해 알게 된 친구들이 대신 나서주었다.  
누가 흉터에 대해 물어보면,

“야 너 미니한테 왜 그런 걸 물어봐! 넌 눈치도 없냐?” 라고 말해준다.

친구들이 있어 든든하다.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두꺼운 까만 스타킹을 신는다.

나는 오늘도 살색 스타킹을 신었다.  
왜냐하면 살색 스타킹을 신은 내 다리가 더 예쁘기 때문이다.

거울 앞에서 스타킹을 신는 내게 엄마가 한마디 한다.

“미니야, 까만 스타킹 신고 가. 감기 걸려”  
“안 돼. 까만 스타킹은 다리가 굵어 보인단 말이야!”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났다.  
“넌 진짜 다리가 가늘어서 좋겠다. 다리 모양 완전 예쁘다.”

그동안 흉터 콤플렉스 때문에 내가 가진 장점을 잊고 살았다.

나는 내 흉터가 친구들한테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다들 내 다리가 예쁘다고 한다.

내일도 난 살색 스타킹을 신고 학교에 갈 거다.



내 화상으로 인해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을 엄마.  
내 실수 때문에 화상을 입은 건데, 괜히 엄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지금은 화상 덕분에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딸' 이라고 말해주는 우리아빠!  
화상흉터 이야기 하면 짜증내고 자리 피했는데,  
아빠도 항상 제 흉터가 마음 쓰이셔서 그렇게 말씀 하셨다는 것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절친보다 더 친한 우리 민주언니!  
사실 언니가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주지 않았으면 화상커밍아웃은 힘들었을거야.  
언니가 없었으면 난 누구한테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어. 고마워 언니!  
형부랑, 곧 태어나는 강이랑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화상 관련 활동을 하는 데 가장 도움을 주는 창원아!  
화상관련 자원봉사를 할 때도, 논문 때문에 설문지 돌리러 다닐 때도, 행사 참여 때도  
항상 어디 갈 때마다 태워달라고 부탁할 때 기꺼이 들어주는 착한 동생!  
너무너무너무 고마워.  
마음도 따뜻하고 멋진 창원아!  
앞으로 네 이름처럼 하는 일 모두 창성애지길 바랄게!

작가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너무 고생하셔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미안한 미녀 능력자♡ 손은영 사회복지사님과 베스티안재단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미자 작가님! 작가님께서 제가 쓴 이야기를 읽어주셨을 때 정말 기분이 짱했어요.  
제가 쓴 글을 누군가가 감정을 넣어서 읽어줬던 적이 처음이에요.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동화 삽화를 그려준 봉구쌤,  
고퀄리티 작품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그림을 그리시든지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만나면 기분 좋은 우리 아이엔맘 2기 멤버들♡  
든든하게 그 자리에 있어주셔서, 제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꺼내 적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 멘티 회정이 그리고 회수야. 이 동화는 너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 쓸 수 없었을 거야.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이야기이기도 해.  
너희를 만나면서 내 중학교 시절을 돌아볼 수 있었고 위로도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는 사실 중학교 때 용기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화상흉터를 보여주지 못했어.  
너네는 했잖아.  
만날 때마다 발전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디에선가 흉터로 고민하고 있을 분들께  
저의 경험을 담은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색스타킹**

© 서민희, 2016

지은이 서민희  
그린이 권봉구  
편집 손은영  
펴낸곳 베스티안재단(<http://ibestian.org/>)  
자문 김미자(글), 박현욱(그림)

·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은이와  
베스티안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